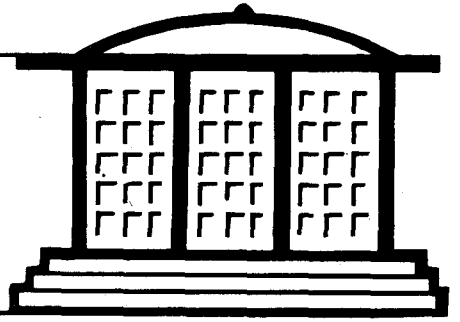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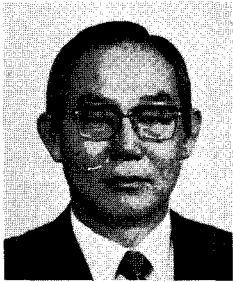


소식

기관단체



■ 농림수산부장관에 尹勤煥 농협중앙회장 임명



(윤근환 농림수산부장관)

새로 농림수산부장관에 임명된 윤근환장관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으며, 30여년간 농림수산분야와 인연을 맺어온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농림수산행정의 총수로 발탁됐다.

윤장관은 57년 농촌진흥청 전신인 농사원(農事院)에서 첫 농수산 공직자 생활을 시작,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식산차관보를 역임한 뒤 농촌진흥청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림수산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70년대 농산차관보 시절에는 쌀증산의 책임자로 들떠를 누비며, 만성적인 쌀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오늘의 주곡자급의 터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식산차관보 재직시에는 양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앞으로 윤장관의 양계산업정책에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랜기간 농정의 여러분야를 고루 거치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이론을 바탕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것으로 신임 윤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윤장관은 오랜동안의 협동조합 생활을 통하여 영세농민 영세양축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사회정의 차원에서 새로운 축산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과 독서가 취미인 것이 말해주듯 그는 근면·성실·집념을 좌우명으로 하고 있으며, 부인 김정언여사(54)와의 사이에 3남1녀를 두고 있다.

◇ 약 력 ◇

▲全南 咸平출신 · 59세 ▲54년 서울대 농과대학졸(농학박사) ▲61년 농사원시험국 연구조정과장 ▲69년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장 ▲70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74년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77년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79년 농진청 농업기술연구소장 ▲80년 농촌진흥청장 ▲82년 농협중앙회장(12대) ▲85년 농협중앙회장(13대)

■ 농림수산부차관에 李병기씨 임명

- 농진청장에는 朴정윤차장이 승진임용돼 -

정부는 3월4일자로 외무부차관에申東원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기용하는 등 14개 부·처차관, 徐영택 국제청장 등 7개 청장, 李進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7명의 차관급을 포함 모두 28개 부서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차관에는 李병기 농산물검사소장이 임용되었는데 李차관은 49세 부산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 농수산부 제2차관보, 농촌진흥청차장을 역임하는 등 역량있는 농수산분야 행정가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에는 朴정윤 농진청차장이 승진 임용되었다.

이차관은 식산차관보 재직시 사료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경감기준 발표

정부에서는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해서 종합

소득세 자동부과율을 경감시켜주는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이와같이 계속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경감대상자 중 장기계속사업요건으로는 86년 12월 31일기준 동일한 명의로 만5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장기 계속사업자로 간주한다.

1) 수용, 도시계획, 사업장일차계약해지, 기타 객관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시·군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자로써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자.

2)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자.

또한 경감대상업종기준으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장기계속업자는 모두 경감대상이 된다.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수산업 (1) △광업과 채석업 (2) △제조업 (3) △도매업 (51) 소매업 (52) 음식숙박업 (53)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5)

이상의 업종 분류는 86년 소득표준율표에 의한다.

그러나 적용제외자는 최근 3년간 부가세 한계사업자였던 자로서 전산선정된 자이다.

한편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경감율에 있어서는 각자의 자동부과율에서 장기계속사업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된다.

1 5년이상 10년 미만→20% 경감

(81. 12. 31 이전개업자)

2) 10년이상→30% 경감

(76. 12. 31 이전개업자)

* 자동부과율 경감계산례(소매업, 서울, 10년계속)

- 소득표준율소득의 90%→63% ($90 \times \frac{70}{100}$)

특히 적용제외자 중 부가세한계사업자(소매업)는 연간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상 2,400만원인 자를 뜻한다.

■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발기인총회 1년반만에 인가받아 -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용태)이 지난 3월2일 농림수산부공고 제88-8호(중소기업협동조합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사료업체가 갈수록 대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한 것은 물론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채산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자구책



(김용태 이사장)

마련을 위해 사료공업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가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설립인가가 늦어졌던 것은 사료협회와의 업무이중화와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의 제한 및 중소기업자와 대기업자간의 사업조정을 조합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인가를 보류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개방화추세에 따라 곡물쿼터제 폐지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조합의 설립필요성을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사료업체는 이같은 농림수산부의 인가조치에 대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계기로 동업계는 조합을 주축으로 배합사료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경영활성화를 모색해나갈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이사장(신촌사료사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전제하고 「갈수록 여건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중소사료업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현재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회원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사료 ▲경북축산 ▲홍성사료 ▲부곡사료 ▲신촌사료 ▲한일사료 ▲동서농산 ▲진홍사료 ▲서부사료 ▲중앙축산 ▲현대사료 ▲천광산업 ▲한성사료 ▲화성산업 ▲경기사료 ▲은성산업 ▲삼화물산 ▲원곡사료 ▲남양산업 ▲선일사료 ▲진양사료

■ 동물약품유통협의회 기자간담회 개최

- 축산물수입개방 반대결의도 가져 -

동물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명량한 상거래질서를 도모키 위해 기존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동물약품연구회 및 한국동물약품수입업자협의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동물약품유통협의회(회장 강승조)가 지난 1월2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축산



(강승조 회장)

관련 전문지 기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회장은 「국내 축산업이 사양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가지만 유통면에서는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유통협회의 회를 중심으로 동물약품유통이 축산업계에서 유통부문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각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협회의 운영위원들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개방 뿐만아니라 일반 축산물까지 수입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내축산은 축산인 및 축산 관련업체들이 힘을모아 지켜가자며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결의가 있었다.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 계란오므렛요리 팜플렛 제작배포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가 최근 「계란 오므렛요리」 팜플렛을 제작하여 일반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또한 동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와 공동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계란요리전문가 하워드헬머(Howard Helmer)씨를 초청하여 계란오므렛요리 발표회를 가진이후 국내 소비자들에게 계란오므렛요리법을 널리 보급하는 한편 본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팜플렛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는 전화번호 : 733-4983 · 4079

■ 서울우유 협동조합 사료공장 설립인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강성원)이 5년여에 걸쳐 추진해왔던 사료공장건립에 대한 정부인가를 최근 취

득했다.

동조합은 그동안 일반사료회사에서 제조한 낙농사료와는 달리 착유사료를 1호부터 9호까지 전문낙농착유사료를 공급, 조합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으나 임가공함으로써 원가부담이 가중돼 자체공장설립을 서둘러 왔었다.

이에 따라 동조합은 반월지역에 일산 300톤급 규모의 사료공장설립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에 배합사료 공장을 신규허가 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농장이나 축산단지의 자가배합사료공장의 신규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린 셈이다.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설립

- 농유공, 종합식품연구원에서 현판식기져 -

농림축산물의 저장·처리·가공기술연구를 위해 설립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원장 : 권태완)이 2월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종합식품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동연구원은 오는 92년까지 2백명의 직원을 확보하여 농림축수산물 원료의 합리적이용, 새로운 가공공정의 개발, 천연물질의 경제적활용 기술확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 돼지고기수출 적극지원

- 올해 50억원 저리융자키로 -

농림수산부는 돼지고기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수출업체에 융자지원키로 했다.

최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이 등심 안심 등을 수출하고 남은 부위의 고기(75%)를 시중에 판매할 경우 돼지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 東南肉加工 靑陽 등 양돈장을 보유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출만 하는 12개업체에 30억원을 연리 8% 1년후 상환조건으로 지원, 남은 고기를 자체 비축하도록 했다.

한편 양돈업계는 돈육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돈육생산에 사용된 배합사료 등 제반원료의 관세부가세 환급절차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 도축장의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56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제56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설동섭)가 지난 2월23일(화) 오전10시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앙협의회 위원 및 간사, 각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축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절기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돼지 오제스키병 방제대책을 검토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홍보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 새마을신문 사무실이전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해 발행·배포하는 새마을신문(발행인: 천세봉)이 88년 2월12일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 아 래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960-4호
- TEL: 562-8480/3
- FAX: 567-4913

■ 위배사료 조치결과 통보

부산직할시 농정과에서는 '87. 4/4분기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사료검사결과 위배된 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 위배사료 조치내역

| 공장명 | 사료명 | 위배성분 | 등록치 | 검사결과 | | 과부족 | | 과징금부과내역 | |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일산능력 | 금액 |
| 이화유지 공업(주) | 어분 (상) | 조회분 | 25.0% 이하 | 25.49 | 26.87 | 0.49 | 1.87 | 11톤 | 55,000원 |
| | | | | | | 초과 | 초과 | | |

■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정기총회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회장 함만준)가 지난 2월29일 동본부 회의실에서 8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대한가금처리협회 총회개최

대한가금처리협회(회장 류종래)는 88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2월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권리자가 권리자체를 포기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 양계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하며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양계인이 몰라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